



#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유지혜<sup>1</sup> · 최현경<sup>2</sup>

경북대학교병원 간호사<sup>1</sup>,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sup>2</sup>

##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Coping Styles on Burnout in Clinical Nurses

You, Ji Hye<sup>1</sup> · Choi, Hyunkyung<sup>2</sup>

<sup>1</sup>Registered Nurs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gu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nurses' various perfectionism and coping styles.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200 clinical nurses who had six months or more years of clinical experiences from two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D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 **Results:**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tive coping styl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tive coping style and passive coping style. Influencing factors on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wer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 $\beta=.37$ ), satisfied work unit ( $\beta=-.64$ ) and neutral satisfaction of work unit ( $\beta=-.27$ ), over 40 years of age ( $\beta=-.21$ ), and active coping style ( $\beta=-.14$ ). The model consisting of these variables explained 42% of variance of burnout in clinical nurses.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consider influencing factors such as perfectionism and coping styles is needed to reduce the level of burnout of clinical nurses.

**Key Words:** Burnout; Nurses; Perfectionism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23개 의료기관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 활동 현황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낮은 연봉

수준과 휴가·휴직활용의 어려움 다음으로 과중한 업무를 임상근무의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서는 과중한 업무가 임상근무를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1위를 차지하여 간호사의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

주요어: 대처유형, 소진, 임상간호사, 완벽주의 성향

**Corresponding author:** Choi, Hyunkyung <https://orcid.org/0000-0002-2146-5910>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bosang-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200-4791, Fax: +82-53-421-2758, E-mail: hchoi@k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유지혜의 석사학위논문 수정본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an 13, 2019 | Revised: Feb 18, 2019 | Accepted: Feb 19,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상간호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Byun & Yom, 2009), 근무시간 동안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업무특성상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소진으로 이어지게 된다(Kwon & Lee, 2012). 소진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 소진이 높은 간호사는 환자에게 부정적 태도로 임하여 낮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오류가 증가하게 된다(Page, 2004). 또한, 소진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감소시키고 높은 이직의도를 초래한다(Kim & Seomun, 2013). 따라서 과중한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이 보고되고 있다(Kim, 2013).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행위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언제든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은 간호사로 하여금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한다(Kim, 2013). 또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 화재 등 큰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호사에게 항상 책임감과 긴장을 갖도록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완벽주의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8).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결국 간호사의 소진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완벽주의는 개인의 성격특성, 부모의 완벽주의, 가족환경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달하면서 그 성향을 가지게 된다(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완벽주의 성향은 크게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분류된다(Hewitt & Flett, 1991).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 완벽해 지려 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만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에게 완벽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을 겪기도 하지만, 개인 내적 자원이 충분하거나 일을 건설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성취동기의 적응적 측면이 나타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완벽을 추구하고 엄격하게 평가하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 등에도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에 의해 높은 기준이 부과된다고 믿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지향 및 타인지향 완벽주의에 비해 소진의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Yu & Chae, 2016)되고 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아존중감 향상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Kim & Son, 2006).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가 간호사의 소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가 지닌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소진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적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직면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문제중심의 대처와 긍정적 관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 소진이 감소하고, 무관심 대처는 오히려 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Lee, 2012).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소극적인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Hong, 2017). 즉, 임상간호사가 업무환경에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업무에 대한 만족감 증가와 같은 적응상태 혹은 소진과 같은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대처유형은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Kwon & Lee, 2012), 소진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효과적인 대처유형의 사용은 간호사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간호조직의 발전에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 스트레스(Kwon & Lee, 2012), 감정노동(Park, 2009), 공감피로(Kim & Lee, 2016) 등의 업무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으며, 완벽주의와 같은 개인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교사(Park & Chung, 2018), 연구원(Sur, 2012), 운동선수(Cho & So, 2010)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문간호사(Noh, Park, & Im, 2016)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등 일부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임상간호사 직업군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간호사의 소진은 꾸준한 관심을 요구하는 중요한 개념이고, 소진과 관련된 연구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써 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 유형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마련과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과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고,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D시에 소재한 2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임상간호사 중 연구에 참여하고자 서면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사 초기의 신규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대한 숙습 및 적응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6개월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개인적·가정 내 갈등 및 약물 복용 병력이 소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시 해당되는 간호사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10개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분석한 결과 172명으로 예측되었으며, 3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그중 206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200부가 본 연구의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연구도구

### 1) 소진

Malakh-Pines, Aronson와 Kafry (1981)이 개발한 소진 척도를 Hong (1984)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신체적 소진 7문항, 정서적 소진 7문항, 정신적 소진 7문항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 (198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3이었으며,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 는 신체적 소진 .84, 정서적 소진 .82, 정신적 소진 .84였다.

### 2) 완벽주의 성향

Hewitt와 Flett (1991)이 개발하고 Han (199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15문항, 타인지향 완벽주의 15문항, 사회부과 완벽주의 1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의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 (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84, 타인지향 완벽주의 .73, 사회부과 완벽주의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91과 .76과 .80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 3) 대처유형

Lazarus와 Folkman (1984)이 개발하고 Han과 Oh (1990)가 번역·수정한 것을 Kim (20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중심 대처 8문항,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 7문항, 희망적 관점 대처 5문항, 긍정적 관심 대처 4문항, 무관심 대처 6문항, 긴장해소 대처 3문항의 총 6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Na (2014)가 수행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대처유형을 적극적 대처(문제를 직시하고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와 소극적 대처(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상태에 집중하여 통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

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를 적극적 대처로 희망적 관점 대처, 긍정적 관심 대처, 무관심 대처, 및 긴장해소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각각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유형의 이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Na (2014)의 연구에서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 .77, 소극적 대처 .79, 그리고 전체 신뢰도가 .85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과정(2017-0143)을 거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D시에 위치한 2개 종합병원 간호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였다. 병원의 방침에 따라 설문지는 연구자가 각 부서마다 직접 방문하여 배부한 후 비밀유지를 위해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 및 익명성이 보장됨을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형식의 설문지로 응답하게 하였고, 감사의 표시로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및 소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Scheffé 사후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및 소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98.5%는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32.25세였고, 21~29세가 50%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7%로 기혼보다 다소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60.5%, 학력은 4년제 졸업이 66%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평균 9.19년으로 5년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다. 현 부서 경력은 평균 2.03년으로 1년 이하인 경우가 52%를 차지하였다.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84%가 3교대 근무였고, 근무하는 부서는 내과 병동이 41.5%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직경험은 한 번도 없는 대상자가 76.5%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자의 부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라는 중립적인 의견이 46.5%로 가장 많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의 정도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은 평균  $4.18 \pm 0.45$ 점으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4.55 \pm 0.67$ 점,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3.96 \pm 0.47$ 점,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4.03 \pm 0.49$ 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처유형의 하위요인별로는, 적극적 대처유형이  $3.34 \pm 0.35$ 점, 소극적 대처유형이  $2.84 \pm 0.38$ 점이었다. 소진은 평균  $3.06 \pm 0.62$ 점으로 하위요인별로는 신체적 소진  $3.36 \pm 0.69$ 점, 정서적 소진  $2.91 \pm 0.63$ 점, 정신적 소진  $2.92 \pm 0.68$ 점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부서에 대한 만족도( $F=33.47, p<.001$ ), 연령( $F=8.96, p<.001$ ), 결혼상태( $t=3.31, p=.001$ ), 임상경력( $F=5.19, p=.002$ ), 근무형태( $t=3.16, p=.002$ ), 직위( $t=2.46, p=.015$ ), 교육수준( $F=3.57, p=.030$ ), 종교 유무( $t=2.08, p=.039$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20대와 30대 대상자가 40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그리고 미혼 대상자는 기혼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소진이 높았다. 또한, 무교인 대상자가 종교를 가진 대상자보다,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하와 6년~10년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21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소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상근근무를 하는 대상자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197 (98.5)
	Male	3 (1.5)
Age (year)	21~29	100 (50.0)
	30~39	62 (31.0)
	≥ 40	38 (19.0)
		32.25±8.92
Marital status	Single	114 (57.0)
	Married	86 (43.0)
Religion	None	121 (60.5)
	Yes	79 (39.5)
Educational level	College	31 (15.5)
	Bachelor degree	132 (66.0)
	≥ Master degree	37 (18.5)
Total career (year)	≤ 5	91 (45.5)
	6~10	42 (21.0)
	11~20	42 (21.0)
	≥ 21	25 (12.5)
		9.19±8.99
Working career (year)	≤ 1	104 (52.0)
	2~3	60 (30.0)
	4~5	21 (10.5)
	≥ 6	15 (7.5)
		2.03±2.11
Working pattern	3 Shifts	168 (84.0)
	Fixed Day shift	32 (16.0)
Work unit	Medical ward	83 (41.5)
	Surgical ward	43 (21.5)
	Intensive care unit	17 (8.5)
	Emergency room	31 (15.5)
	Out-patient department	17 (8.5)
	Other	9 (4.5)
Job position	Staff nurse	191 (95.5)
	Head nurse	9 (4.5)
Experience of turnover	None	153 (76.5)
	1	32 (16.0)
	≥ 2	15 (7.5)
Satisfaction of work unit	Dissatisfied	19 (9.5)
	Neutral	93 (46.5)
	Satisfied	88 (44.0)

3교대 근무를 하는 대상자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소진이 나타났다. 일반 간호사는 주간호사보다 유의하게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서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대답한 대상자 일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 4.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진은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14, p=.047$ )가 있었다. 완벽주의의 하부요인 중 사회부와 완벽주의와는 양의 상관관계( $r=.35, p<.001$ )를 보였으나, 적극적 대처와는 음의 상관관계( $r=-.17, p=.020$ )를 나타냈다.

소진의 하부요인 중 신체적 소진은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18, p=.012$ )가 있었고,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양의 상관관계( $r=.30, p<.001$ )를 보였다. 정서적 소진은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16, p=.027$ )가 있었고,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양의 상관관계( $r=.37, p<.001$ )를 보였으며, 적극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 $r=-.16, p=.024$ )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소진은 사회부와 완벽주의와만 양의 상관관계( $r=.31, p<.001$ )를, 적극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 $r=-.22, p=.002$ )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적극적 대처는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 $r=.31, p<.001$ )가 있었으며, 자기지향 완벽주의( $r=.35, p<.001$ )와 타인지향 완벽주의( $r=.20, p<.005$ ), 그리고 사회부와 완벽주의( $r=.19, p=.008$ )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극적 대처는 사회부와 완벽주의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16, p=.026$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 5.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소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 결혼상태, 종교유무, 학력, 임상경력, 근무 형태, 직위, 부서 만족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소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적극적 대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Durbin-Watson의 값이 1.7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3~1.0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지수는 1.0~3.2로 10 미만이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Table 2.** Levels of Perfectionism, Coping Type and Burnout

(N=200)

Variables	M±SD	Min~Max	Range
Perfectionism	4.18±0.45	2.80~5.51	1~7
Self-oriented perfectionism	4.55±0.67	3.07~7.00	1~7
Other-oriented perfectionism	3.96±0.47	2.40~5.60	1~7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4.03±0.49	2.27~6.33	1~7
Coping style			
Active coping style	3.34±0.35	2.40~4.13	1~5
Passive coping style	2.84±0.38	1.72~3.83	1~5
Burnout	3.06±0.62	1.48~4.95	1~5
Physical burnout	3.36±0.69	1.57~5.00	1~5
Emotional burnout	2.91±0.63	1.29~5.00	1~5
Psychological burnout	2.92±0.68	1.14~5.00	1~5

**Table 3.** Differences in the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Burnout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Female	3.06±0.62	-0.54	.590	
	Male	3.25±0.15			
Age (year)	21~29 <sup>a</sup>	3.19±0.56	8.96	< .001	a, b > c
	30~39 <sup>b</sup>	3.07±0.64			
	≥40 <sup>c</sup>	2.71±0.62			
Marital status	Single	3.18±0.55	3.31	.001	
	Married	2.90±0.67			
Religion	None	3.14±0.63	2.08	.039	
	Yes	2.95±0.59			
Educational level	College <sup>a</sup>	3.21±0.70	3.57	.030	a > c
	Bachelor degree <sup>b</sup>	3.09±0.57			
	≥ Master degree <sup>c</sup>	2.84±0.67			
Total career (year)	≤5 <sup>a</sup>	3.17±0.55	5.19	.002	a, b > d
	6~10 <sup>b</sup>	3.20±0.65			
	11~20 <sup>c</sup>	2.91±0.61			
	≥21 <sup>d</sup>	2.72±0.67			
Working career (year)	≤1	3.05±0.61	0.49	.692	
	2~3	3.03±0.63			
	4~5	3.08±0.67			
	≥6	3.24±0.59			
Working pattern	3 Shifts	3.12±0.60	3.16	.002	
	Fixed Day shift	2.75±0.63			
Work unit	General ward (Medical + Surgical)	3.02±0.59	1.45	.231	
	Special department (ICU+ ER)	3.20±0.58			
	Out-patient department	2.90±0.71			
	Other	3.15±0.97			
Job position	Staff nurse	3.09±0.62	2.46	.015	
	Head nurse	2.57±0.42			
Experience of turnover	None	3.04±0.64	0.47	.628	
	1	3.11±0.57			
	≥2	3.18±0.50			
Satisfaction of work unit	Dissatisfied <sup>a</sup>	3.61±0.49	33.47	< .001	a > b > c
	Neutral <sup>b</sup>	3.27±0.50			
	Satisfied <sup>c</sup>	2.73±0.58			

ICU=intensive care unit; ER=emergency room.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beta = -.64, p < .001$ ), 사회부와 완벽주의( $\beta = .37, p < .001$ ), 부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beta = -.27, p = .005$ ), 40세 이상의 연령( $\beta = -.21, p < .001$ ), 그리고 적극적 대처( $\beta = -.14, p =$

.014)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42%였다( $F = 30.04, p < .001$ ). 즉,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았으며, 부서 만족도에 대해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40세 이상의 연령일수록,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00)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3	3-1	3-2	3-3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Perfectionism	1										
1-1. Self-oriented perfectionism	.91 ( $< .001$ )	1									
1-2. Other-oriented perfectionism	.76 ( $< .001$ )	.56 ( $< .001$ )	1								
1-3.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78 ( $< .001$ )	.60 ( $< .001$ )	.36 ( $< .001$ )	1							
2. Coping style											
2-1. Active coping style	.31 ( $< .001$ )	.35 ( $< .001$ )	.20 (.005)	.19 (.008)		1					
2-2. Passive coping style	.11 (.107)	.06 (.397)	.08 (.271)	.16 (.026)		.49 ( $< .001$ )	1				
3. Burnout	.14 (.047)	.06 (.383)	-.05 (.462)	.35 ( $< .001$ )		-.17 (.020)	.04 (.582)	1			
3-1. Physical burnout	.18 (.012)	.14 (0.51)	.00 (.990)	.30 ( $< .001$ )		-.08 (.245)	.06 (.416)	.91 ( $< .001$ )	1		
3-2. Emotional burnout	.16 (.027)	.07 (.341)	-.04 (.598)	.37 ( $< .001$ )		-.16 (.024)	.03 (.647)	.95 ( $< .001$ )	.80 ( $< .001$ )	1	
3-3. Psychological burnout	.06 (.414)	-.03 (.636)	-.11 (.127)	.31 ( $< .001$ )		-.22 (.002)	.02 (.802)	.92 ( $< .001$ )	.72 ( $< .001$ )	.84 ( $< .001$ )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Burnout

(N=200)

Variables	Categories	B	SE	$\beta$	t	p	VIF
(Constant)		2.57	0.41		6.33	$< .001$	
Satisfaction of work unit <sup>†</sup> (Ref.: Dissatisfied)	Satisfied	-0.80	0.12	-.64	-6.66	$< .001$	3.19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47	0.07	.37	6.74	$< .001$	1.04
Age (year) <sup>†</sup> (Ref.: 21~29)	$\geq 40$	-0.34	0.09	-.21	-3.82	$< .001$	1.07
Satisfaction of work unit <sup>†</sup> (Ref.: Dissatisfied)	Neutral	-0.34	0.12	-.27	-2.82	.005	3.16
Active coping style		-0.25	0.10	-.14	-2.48	.014	1.10

$R^2 = .44, \text{Adj. } R^2 = .42, F = 30.04, p < .001$

Ref.=References; <sup>†</sup>Dummy coded: Age, Satisfaction of work unit.

##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의 소진이 개인적 요인인 완벽주의와 대처유형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 소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의 3.06점으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소진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2.94점(Park, 2009) 및 3.12점(Her, 2016)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소진을 살펴본 선행연구들 가운데, 초등교사(Park & Chung, 2018)와 전문간호사(Noh et al., 2016)에서 각각 나타난 2.37점(5점 만점 기준) 보다는 높았다. 이는 임상간호사가 타 직종과 직책에 비해 소진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소진 정도를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해 봤을 때, 신체적 소진이 3.36점으로 정서적 소진 2.91점과 정신적 소진 2.9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체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른 선행연구(Her, 2016; Park, 2009)에서도 신체적 소진 정도가 정서적·정신적 소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환경 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며, 간호사의 신체적 소진을 줄이기 위해 인력확충 및 업무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조사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대조하여 논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 평균점수는 7점 만점 기준 4.18점, 그중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평균은 4.55점이었고,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평균은 3.96점이었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평균은 4.03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완벽주의 성향을 살펴본 선행연구(Noh et al., 2016)에서 확인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5.11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4.79점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Park & Chung, 2018)에서 보고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4.33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65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간호사보다는 낮지만 초등교사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직업군과 비교하여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재차 확인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병원 직업환경에서 간호사는 완벽주의 성향이 더욱 요구되고, 특히, 전문간호사는 다양한 업무 영역의 상급간호 실무를 수행하므로 완벽주의 성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임상간호사의 대처유형 중 적극적 대처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34점이었고, 소극적 대처의 평균은 2.84점이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Na, 2014)에서도 소극적 대처에 비해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적극적인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Her, 2016; Kim, 201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간호사가 업무적으로 갈등상황에 처해 있을 때,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소진은 적극적 대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극적 대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Park & Chung, 2018)에서 소진이 적극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 소극적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지만,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Hong, Tae, & Noh, 2012)와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같은 직업군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Kwon과 Lee (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진이 적극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소극적 대처 중 긍정적 관심 대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희망적 관심 대처와 무관심 대처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Her (2016)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진이 적극적 대처 중에서 사회적 지지 탐색대처와 소극적 대처 중에서 긍정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무관심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나머지 대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사 직업군에서 나타난 일관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소진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Childs & Stoeber, 2010)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소진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타인지향 완벽주의 또한 소진의 냉소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우울



및 부정적 정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Kim & Son, 2006)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ur, 2012)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Noh et al., 2016)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선행연구는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배제된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비적응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는 선행연구(Molnar, Reker, Culp, Sadava, & DeCourville, 2006)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직업의 특성과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소진으로 이어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 적극적 문제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해결 방식과 함께 회피 대처 등 소극적 대처를 주로 사용한다는 선행연구(Cho & So, 2010)가 본 연구결과를 일부 뒷받침해준다. 즉, 간호사는 위기상황에서 주로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나(Her, 2016; Kim, 2012),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타인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에서 40세 이상의 간호사가 다른 연령대의 간호사에 비해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데(Kim & Lee, 2016; Kim et al., 2017),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간호사의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서 만족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간호사에 비해 낮았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7)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선행연구(Childs & Stoeber, 2010; Noh et al., 2016; Sur, 2012)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임상간호사가 타인에 의해 부과된 기준이 과중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정

적 정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Kim & Son, 2006) 이러한 상태가 곧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처유형 중 적극적 대처를 지향할수록 임상간호사의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초등교사(Park & Chung, 2018)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임상간호사가 위기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탐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추구할수록 소진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직무 상황을 적극적인 대처로 직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병원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D시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완벽주의 성향 및 대처유형과 같은 개인적 성향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요소인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간호사에게 있어서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과 동시에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효과적인 대처능력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즉, 간호부에서 임상간호사들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 유형 및 소진 정도를 조사하고, 개별 간호사에게 임상환경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소개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 중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내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겠다. 또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탐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타인 또는 사회가 부과시키는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기에,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또 다른 중재변인을 추가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적극적 대처, 연령, 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질수록 소진은 증가하며,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40세 이상의 연령일수록 소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에 대한 만족 정도가 간호사의 소진을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과 적극적 대처 유형이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을 파악하여 이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적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환자 안전을 위해 완벽주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임상간호 업무현장에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전략적인 대처유형을 통해 소진을 줄이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D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여 선정한 양적 조사연구로, 표집결과에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으므로 대표성을 띄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표본 크기를 확대한 전국적 규모의 반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개념을 다른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임상간호사의 대처유형을 통한 소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지속적인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yun, D. S., & Yom, Y. H. (2009).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Focused on emotional lab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3), 444-454.
- Childs, J. H., & Stoeber, J. (2010). Self-oriented, other-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 employees: Relationships with burnout and engagement.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25(4), 269-281.
- Cho, H. I., & So, Y.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stress coping, and anger expression of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1(2), 1235-1247.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n, J. S., & Oh, K. S. (1990). A study on the grief and coping pattern of mothers who have a chronically ill child. *The Korean Nurse*, 29(4), 73-87.
- Han, K. Y. (1993).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Concept, measurement and mal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Her, Y. H. (2016).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burnout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ong, K. P. (1984). *An analytic study on burnout in relation with personal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Hong, M. J., Tae, Y. S., Noh, M. Y. (2012).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ways of coping and burnout of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Asian Oncology Nursing*, 12(1), 92-99.
- Kim, H. J., & Son, C. 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345-361.
- Kim, J. I., & Lee, T. W.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2(2), 109-117.
- Kim, J. J., & Hong, S. H. (2017).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academic burnout among elementary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coping response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8(4), 201-214.
- Kim, M. R., & Seomun, G. A. (2013). Relationship among burnou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o resign i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2), 93-101.
- Kim, S. R., Jeon, M. K., Hwang, J. H., Choi, A. R., Kim, I. S., Pyon, M. K., et al. (2017). Multidimensional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1), 9-19.
- Kim, Y. J. (2013). *Field research on th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hospital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O. (2012). *The comparison between ICU nurses and ER nurses in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coping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orea Consumer Agency (2018, October 24). *Patient safety accident, being occurred by carelessness of health care providers*. Retrieved

- February 18, 2019, from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484&multi\\_itm\\_seq=0](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484&multi_itm_seq=0)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December). *Survey of nurse activity status*. Retrieved September 15, 2015, Available from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158628&menuId=MENU00085>
- Kwon, K. J., & Lee, S. H. (2012). Occupational stress and coping styles as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4), 383-39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lakh-Pines, A. M., Aronson, E., & Kafry, D.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A Division of MacMillian Publishing Co. Inc., 202-222.
- Molnar, D. S., Reker, D. L., Culp, N. A., Sadava, S. W., & DeCourville, N. H. (2006). A mediated model of perfectionism, affect, and physical heal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5), 482-500.
- Na, E. M. (2014). *Work pressure and types of stress coping among preceptor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Noh, G. O., Park, K. S., & Im, Y. S. (2016).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advanced practice nurses (AP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2), 109-118.
- Page, A. (2004). *Keeping patients safe: Transforming the work environment of nurs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Park, H. J. (2009). Emotional labour, emotional expression and burnou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2), 225-232.
- Park, H. J., & Chung, H. H. (2018). Mediation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7*(3), 397-419.
- Sur, J. M. (2012). The influence of R&D researchers' perfectionism on burnout: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8*(2), 261-278.
- Yu, J. H., & Chae, S. J. (2016).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y perfectionism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1*(1), 88-95.